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강건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군선교파송의 주일

오현진 형제가 6월 11일(화) 군 입대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군 장병 생활을 위해 축복과 중보 부탁드립니다(오동영·임명숙 집사의 차남).

3.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경기서지방회)

일시 : 2024년 6월 15일(토)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 세한교회 비젼센터 4층 (수원시 권선구 일월로 21)

4. 여름사역 준비를 위한 모임

일시 : 2024년 6월 16일(주일) 점심 식사 후
장소 : 주사랑교회 교육관

5. 전교인 전도 / 슬러시 기계 사용법

매주 금요일 오후 3~6시에 전교인 전도가 교회 앞 공원에서 있습니다.
슬러시 기계 자율적인 사용은 매주 주일 사용하실 수 있어요.

6. 구역예배 일정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구역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6월 13일(목) 오후 2시 이다남 집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변경은 담임목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주일도 가능!)

7. 2024년 6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4.25 ~ 5.25)*

6/04(화)-노승현 어린이　6/05(수)-이다남 집사(-4.30)　6/10(월)-최서영 어린이
6/10(월)-김승빈 어린이　6/13(목)-전서윤 어린이　6/17(월)-임명순 사모
6/27(목)-이재우 어린이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06/09	임명숙 집사
06/16	정애자 권사
06/23	이가을 권찰
06/30	박제연 집사
07/07	이광근 안수집사
07/14	임명자 집사
07/21	임명숙 집사
07/28	정애자 권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6/09	군선교 파송의 주일
06/11	오현진 형제 군 입대
06/15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06/16	여름사역을 위한 준비모임
	교단통일주일
06/16	특수전도주일 / 통일비전기도회
06/23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주일
	제7회 통일기도회(은혜제일교회)
06/30	선교한신예배 (모로코)
07/01	첫날맞이 월식예배
	통일선교훈련원 전문과정(2차)
07/07	맥추감사주일 (성찬예식)
07/14	카도쉬아카데미 / 교회교육주일

주일 차량 운행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탑동(10:00)
	►화서동(10:10)►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탑동(13:40)
	►화서동(13:50)►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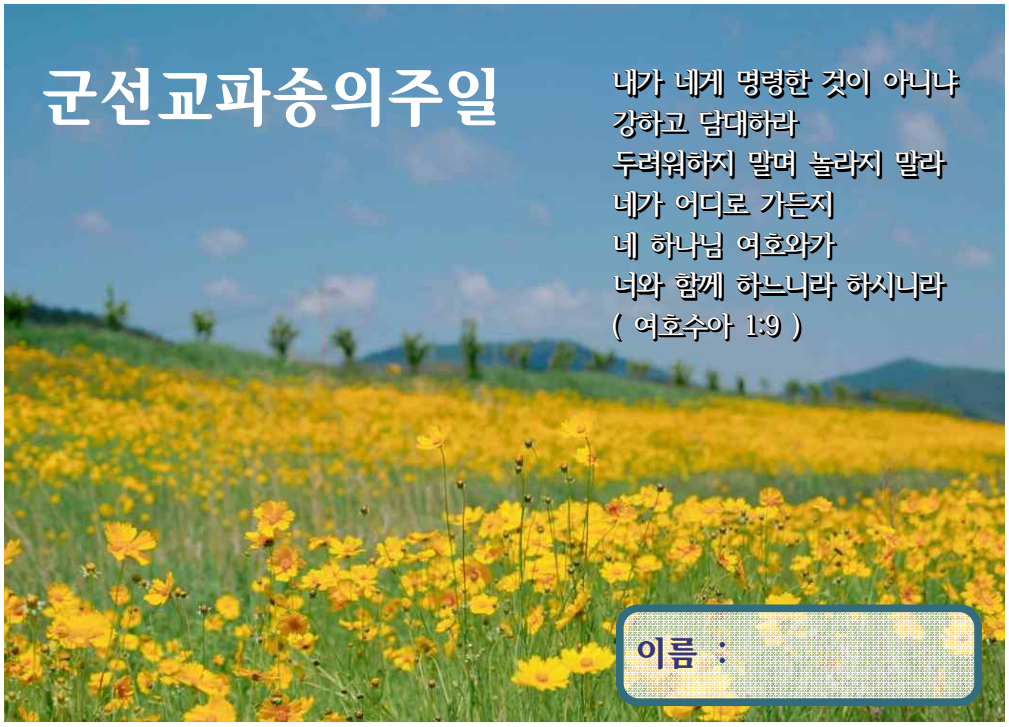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주일학생부예배	낮 1: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3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담 후 진행)

주사랑 7권 23호　2024년 6월 9일
창립 2017.11.25　성령강림 후 세 번째 주일

2024년 표어 (행 9:31)
성령과 동행으로 평안과 부흥 누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은혜와 진리의 말씀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은사공동체
섬기고 전하는 사랑공동체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 한승훈 목사 (010-4724-3562)
교육간사 : 임명순 사모 (010-8177-0617)
찬양율동 : 아하바
피 아 노 : 임명순 한은총
드　　럼 : 한희락 한태민
예배영상 : 한성결
대표기도 : 임명숙 집사 (다음주 : 임명숙 집사)
헌금위원 : 한은총 야반 (다음주 : 한태민 야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618,
3층 301호(세류3동, 성원ⓐ상가)
Tel. 031) 234-1691
Fax. 070) 4015-1691
0504) 472-3562
https://jusarang.org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군선교 파송의 주일) 인도:집례자

※ 묵 도 ····· 시 37:3~6, 23~24 ····· 다 같 이
※ 찬 송 가 ····· 찬 2장 ····· 다 같 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사도신경 ····· 다 같 이
※ 주기도문 ····· 찬 635장 ····· 다 같 이
성시교독 ····· No.69 이사야 40장(2) ····· 다 같 이
찬 송 가 ····· 찬 382장 ····· 다 같 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대표기도 ····· 임명숙 집사
청소년부 교육부장
성경봉독 ····· 여호수아 6:6~9 (구 320) ····· 임명숙 집사
광 고 ····· 인 도 자
말씀인도 ·····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 한승훈 목사
봉헌찬송 ····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 다 같 이
(헌금위원 : 한은총 어린이)
※ 축 도 ····· 담임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오후 1:00 서로 소중히 서로 용납 교육부장
경배찬양 ····· 다 함 께
성경봉독 히브리서 10:19~25 (신364)
말씀제목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말씀인도 ····· 박제연 집사

통일 선교비전 기도회

오후 1:00 ····· 경배와 찬양 ····· 아버찬양단
성경봉독 사도행전 18:12~23 (신 219)
말씀제목 하나님의 방식대로 뜻대로
말씀인도 ····· 한승훈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 경배와 찬양 ····· 아버찬양단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4:13~5:1 (신 289)
말씀제목 거룩한 성도의 소망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 경배와 찬양 ····· 아버찬양단
성경봉독 사무엘상 8:4~11 (구 419)
말씀제목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라

새 벽 기 도 회

새벽5:30 매일성경 새벽본문

9일(일)	행 18:12~23	하나님의 방식대로 뜻대로
10일(월)	행 18:24~19:7	도움, 배움, 세움, 채움
11일(화)	행 19:8~20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
12일(수)	행 19:21~41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
13일(목)	행 20:1~16	언제라도 누구라도 무엇이든
14일(금)	행 20:17~27	사랑과 진실과 성실 위에 세움
15일(토)	행 20:28~38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
16일(일)	행 21:1~16	증인으로의 사명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한희락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이광근 임명숙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한승훈
감사헌금 : 이광근·박제연(자녀) 전복순 한승훈·임명순 무명(1)
월삭감사 : 이광근·박제연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한승훈·임명순 한은총 한희락 한성결 김혜숙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임명자
차량헌금 : 나승원·정영미
선교헌금 : 문동진·임명자 금요전도(무명1) / 정지윤
후원헌금 : 조은교회
성 미 : 이가을(20kg)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국내선교(선한충성교회)

장정정 목사(예정)
선한충성교회
성품연구소 대표
태교연구소 대표

국내선교(오주교훈홈스쿨)

이재우·재희·재아
홈스쿨링
성경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함베르로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컴미션 파송
소리 단이

해외선교(타지키스탄)

이진운 선교사
임민주 선교사

타지키스탄
인터콥 파송
평신도선교사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기성 총회 임원

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성결교회재건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학교

⑦ **압살롬이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도망한 후, 3년이 지나자 다시 다윗에게로 데리고 와서 화해시킨 인물과 이후의 다윗의 반응은 무엇인가요?**(삼하 14:23~24)

( )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 )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 )을 보지 못하니라

⑧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약 4년 동안 반역을 위한 준비를 은밀히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인가요?** (삼하 15:1, 2, 6, 8~9, 10)

[1]그 후에 압살롬이 ( )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 ) 오십 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2]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 ) [6]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 ) [8~9]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 )으로 가니라 [10]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 ) 하니라

⑨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다윗의 대처 방법은?** (삼하 15:13~16)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 )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 )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 )을 왕이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⑩ **다윗이 도망할 때 제사장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과 아비아달이 메어 나온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낸 이유는?** (삼하 15:24~26)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 )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해드립니다)

성경공부 : 2024-23주 / 사무엘하 12 ~ 15장

① **다윗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진노의 말씀을 주셨나요?** (삼하 12:11~12)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　　)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　　)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　　)하리라 너는 (　　)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　　)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후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이 일이 성취됩니다.)

②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죄의 자복과 회개를 통해 얻은 복은 무엇이며,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고통은 무엇인가요?** (삼하 12:13~15)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　　)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　　)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　　)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　　).

③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레 만에 죽게 되자 그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위로하고 둘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삼하 12:24~25)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　　)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　　)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　　)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　　)하셨기 때문이더라

④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차남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 때문에 상사병에 이르게 되자, 교활한 꾀로 부추겨 겁탈하게 만든 인물은?**(삼하 13:3)
암논에게 (　　)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⑤ **암논이 자신의 힘으로 다말을 겁탈하고 정욕을 채운 후 마음의 변화는?**(삼하 13:14~15)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　　)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　　) 이제 (　　)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⑥ **이 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여 죽이고 도망한 곳은?**(삼하 13:37~38)
압살롬은 도망하여 (　　) 암미훌의 아들 (　　)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삼 년이라

성도의 거룩한 삶의 향기 - 경청의 힘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10)

영국의 존경받는 정치가이자 소설가인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13살이나 많은 미혼모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도 연상인데다가 외모도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디즈레일리가 돈을 바라보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제대로 아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디즈레일리가 아내에게 당시 인기 있던 걸리버 여행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저도 그분을 한 번 만나보고 싶어요. 혹시 전화번호나 주소는 모르세요?”라고 말해 남편을 당황시켰습니다. 영국의 대표 지성인 디즈레일리는 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대표 지성인 디즈레일리는 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내를 디즈레일리는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언제나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당대의 최고 지성인이었던 디즈레일리의 마음을 장악한 그녀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청(傾聽)이었습니다.

디즈레일리의 아내는 온갖 업무로 바쁘고 지쳐있는 디즈레일리의 말 하나하나를 정말로 경청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디즈레일리는 충분했습니다.

경청은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자세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부터 먼저 들어주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연과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가	찬 288장	다 같 이
대표기도		이다남 집사
성경봉독	열왕기상 8 : 1 ~ 11 (구 933)	박영대 집사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삶의나눔		다 같 이
합심기도		다 같 이
헌금찬양	찬 309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들어가는 말

성전 건축은 솔로몬 제4년(BC 966)부터 제11년(BC 959)까지 7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왕상 6:38). 솔로몬은 에다님월(제7월)의 절기인 장막절(15~22일) 전에 백성을 모아놓고 봉헌식 준비를 마쳤습니다(2절, 65절). 성전건축이 제11년 8월에 끝났는데 봉헌식 및 장막절 행사가 제7월인 것을 고려한다면 행사는 성전 완공 다음 해인 솔로몬 통치 제12년에 시행되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됨에 따라 봉헌식의 첫 단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모십니다. 사무엘 시대까지 언약궤가 기브온에 설치했던 모세의 성막에 있었지만, 다윗이 왕위로 즉위하면서 가정 먼저 시온성에 장막을 설치하고 언약궤를 헤브론에 보관해 왔습니다. 이제 성전이 새로 건축되었으므로 성막의 기구와 함께 언약궤가 합쳐져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구례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궤가 지성소에 안착되자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삶에서 '선(先)과 후(後)', '본(本)과 말(末)'을 철저히 구별함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건축에 있어서, 이 건축이 ①누구를 위한 성전 건축이고, ②무엇이 우선이고, ③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그 선후와 본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법궤 안치 예식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모두가 참여하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이 참여합니다. 언약궤의 운반과 안치 예식의 진행은 솔로몬이 선도하고, 제사장이 주도하지만, 온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의식으로 웅장하고도 준엄하게 거행됩니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모든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참여하여 셀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약궤는 율법의 규정을 따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에 한마음과 한 뜻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하나 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려는 열망 안에서 한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중심으로 모시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후 곧바로 언약궤를 안치하지 않고, 11개월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이용하거나 부릴 수 없는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장막절에 언약궤를 운반하기로 결정합니다. 장막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축제이기도 하며, 율법 중심으로 새롭게 신앙적 결단을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신 31:9~13). 이 해는 모세가 매 7년(안식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라는 명령을 반포한 후 448년이 되는 해(7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신 31:10~12). 솔로몬은 11개월을 준비하면서 성전봉헌식을 이 시기에 맞추려고 했고, 성전 봉헌식을 통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성취된 것에 감사하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공동체를 형성해, 새로운 역사의 사작을 공포하기로 다짐하려고 했습니다.

언약궤 없는 성전은 빈껍데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조건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언약이 없고, 말씀의 순종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사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이 참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건축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언약궤의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 건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샬롬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증명합니다. 시내 산이나 첫 장막에서보다 더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 결론

온 이스라엘을 언약궤의 안치 의식에 참여하게 하여 무엇이 중요한 지를 환기시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말씀과 순종이 없는 교회는 건물만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순종의 신앙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모든 성도가 성전에 힘써 모여 주님의 선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신앙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